

PARTY in Philippines!

락아의 12월 이야기



Now, we' re enjoying our LIFE in here.

우리의 12월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단어는 'party'였다. 이곳에선 함께 즐기고 함께 춤추며 지나가는 시간을 보내고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한다. 여기는 필리핀. 나가, 그리고 루피. 이곳에 있는 만큼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다.



데이케어 센터의 2018 마무리 party



1. **우리들의 12월 활동보고**
2. **우리들의 피드백**
3. **개인 에세이**
4. **락아네 사진전**

01

락아의 12월 활동



party 1. 눈물 파티. 중간격려 마무리



국내 훈련 때 스스로에게 썼던 편지들과 지원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보며
필리핀으로 오기 전 우리의 초심을 되새겨 볼 수 있었다.



함께 중간평가의 마지막 나눔을 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던 순간.



선물 릴레이가 되기를 바라며 캄팀에게
필리핀 전통 신발 '아방카'를 준비했던 락아팀.
4개월 신었는데 편하고 냄새도 안 나는 기능성 슬리퍼다.
사이즈가 잘 맞았으면 좋겠다.

party 2. 생일 파티. 태어나줘서 고마워

HAPPY BIRTH~DAY TO~ YOU~



JunJun's 생일파티



Ryza's 생일파티



Kuya John's 생일파티



12월은 소중한 사람들의 생일 파티를
함께 축하할 수 있었다.
락아 팀 준준이의 생일파티,
수와 페퍼네 여동생 라이자의 생일파티,
우리 팀 만형이자 오빠인 꾸야 존의 생일파티까지.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다.



party 3. 루피에서의 파티. 끝나지 않는 축제 그리고 흥파티

FIESTA IN LUPI !



MISS GAY CONTEST



FEELING POGGY (내가 제일 잘나가)
CONTEST



성에 개방적인 필리핀을 만난 시간.



신중하게 심사하는 우리 김미카 심사위원

12월은 루피의 축제기간이기도 했다.
옆 동네 피피안의 미스 게이 콘테스트를 시작으로
루피에서는 각 존 별 뷰티 콘테스트,
농구 대회, 필링 포기 콘테스트,
쭈바(춤) 콘테스트가 진행되었고
마지막 11~12일 이틀 간은
다 함께 춤추는 축제 날을 즐겼다.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고 어둡던
루피의 거리가 환하게 빛나고,
거리는 상인들과 사람들로 북적이고,
관객들의 힘찬 응원소리와 참가자들의 열정 가득한
퍼포먼스로 뜨거웠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도 루피의 일원으로서
마을 사람들과 축제를 뜨겁게 즐겼다.
(다음날 몸살이 날 정도로...☺)

party 3. 루피에서의 파티. 끝나지 않는 축제 그리고 흥파티

FIESTA IN LUPI !



LUPI DANCING FIESTA~



사진이라도 남겨보려는 몸치 1, 2

여정과 회정이, 성아는
축제의 끝, 새벽 4시까지
루피 사람들과 춤을 추며
그 시간과 분위기를 즐겼답니다 ☺



춤추는 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보노

party 4. 데이케어센터 파티. 우리 아가들 우쭈쭈 꿈디꿈디

FIESTA IN DAYCARE CENTER !

락아 팀은 데이케어센터의 종강 파티 겸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아 10월부터 함께했던 아이들, 부모님들과 파티를 즐길 수 있었다.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예쁜 옷을 입고서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아이가 선물 받은 게임기를
세상 열심히 하고 있는 준준이

party 5. 우리끼리 파티. 신난다 재미난다

메리 크리스마스 !



비자 연장이 생각보다 늦게 끝나는 바람에, 루피로 돌아가려던 당일 일정을 미루고
그 날밤 오랜만에 함께 모여 맛있는 피자를 먹고 광란의(?) 춤을 추며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다.

이 날 처음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접해본 페퍼와 보노.
표정을 보면 신기해하는 것 같다.

party 5. 우리끼리 파티. 가까운 소중한 사람을 잊지 말자.

소소한 선물들



크리스마스 무렵,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크리스마스에 루피 가족들에게
어떤 선물을 선물할까였어요...ㅎㅎ
그렇게 루피로 갈 준비를 마친 뒤 kuya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카가 밤을 새 쓴 편지와 마닐라에서 사 온 수첩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모두에게 나눠 주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뒤따라 지미도, 빨간 포장지로 예쁘게 감싸져 있는 초콜릿을 주지 뭐예요!!
찰나의 순간, 정작 소중한 팀원들의 선물을 고민하고 사지 못했던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답니다.
성아는 가까운 소중한 사람을 잊지 말자! 반성하며 그 문구를 되새김질 했습니다.

party 6. 크리스마스 파티. 썸머 크리스마스라니!

메리 크리스마스, 루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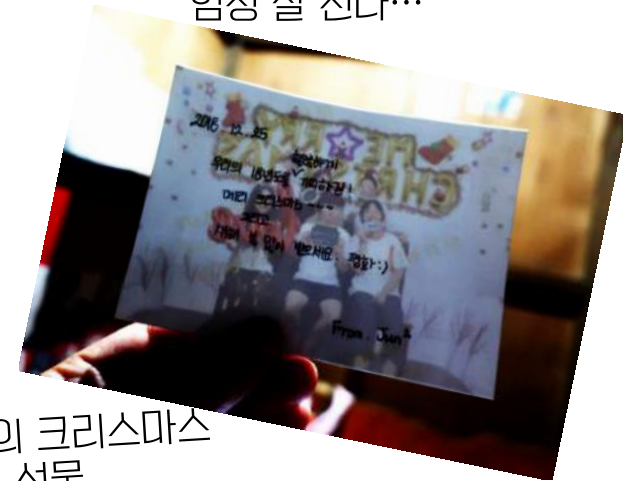
우리는 루피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는 9월부터 준비하고 기다릴 만큼 중요하고 큰 날 이랍니다!



루피로 깜짝 방문을 하셨던 꾸야 존과 아떼 사라.
선물해주신 예쁜 볼펜과 맛있는 브라우니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루피에서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 놀이들

루피 교회에서 즉흥적으로 크리스마스
합창 피아노 반주를 맡은 보노.
연습도 없이 악보만 보고 바로 치는데
엄청 잘 친다...



각자의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

준준이의 크리스마스
선물

party 7. 일상이 파티. 후후후후후 부럽증?

소소한 일상들 - 꾸아 알버트와 크리스마스 파티



보헤미안 랩소디 인증샷
보노 : 한국 가서 꼭 자막 있는 버전으로 보고
사람들이 왜 웃는지 알아야겠다.

루피로 들어가기 전, 또는 가끔씩 시내로 나올 때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개인 시간들을 보내며
각자만의 파티를 즐긴다.



라면과 초밥은 필리핀에서 먹어도 맛있다.

보노
최애
인
피
니
티



키커보이 기구와 전신 거울 + 사진틀리기

party 7. 일상이 파티. 후후후후후 부럽종?

소소한 일상들 - 꾸야 알버트와 크리스마스 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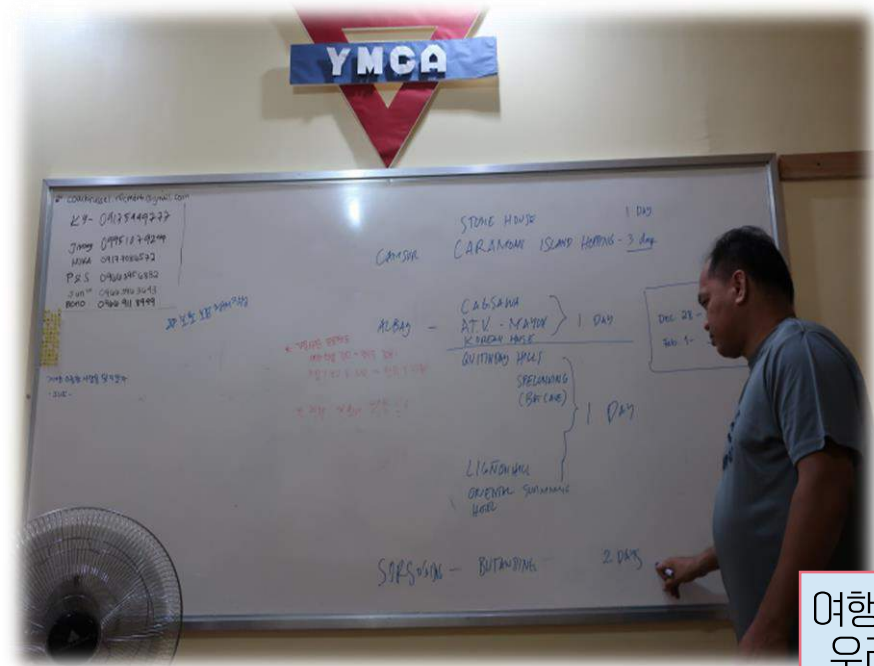
우리의 활동을 응원하고 계시는 또 다른 감사한 분, кам수르 지역 YMCA 이사님이신 꾸야 알버트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꾸야 알버트의 가족들과 꾸야 존, 락아 팀, YMCA 청년 봉사자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성아는 아파서 집에서 휴식 중)

party 8. 가까운 미래를 위한 준비 파티. 함께라서 너무 좋아요.

VISA & TRAVEL



12월 20일, 우리는 비자 연장신청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1월에 있을 여행을 위해 함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행 계획을 세우며
우리보다 더 신난
꾸야 존 & 미카



party 9. 프로젝트 파티. 쉽 없는 대환장 파티~~ 호로로호로로

쓰레기(basura) 프로젝트

우선 설문조사 내용을 데이터화 해보자!
각자 느낀 것을 공유 하는 시간을 가질까?

마을의 주체인 청년들을 만나보는건 어때?
쓰레기와 관련된 영화를 같이 볼까?

색다른 방식의 체육대회는 어때?

페인트 같이 칠하면서...그럼... 좀 친해져 볼까?

예산
정리!

데이케어센터 환경개선

페인트...!!!!

무슨 색으로 해야 할까? 선생님들 뵈러 가자!

연말인데 꾸아에게 페인트 사러 가자고 하는게 맞는 걸까?
얼마나 사야 하지...?

아프신 공사 꾸아는
언제 누구랑 뵈러 가지?

데이케어센터 교구

선생님들과 같이 사러 나갈까?
선생님들과 만나서 언제 같이 나갈지 일정 조율해보자!

새로운 사진관 프로젝트!

홍보 포스터 만들고...번역하고...

공짜로 진행하는 것 보다 돈을 조금 받아서 센터에 기부할까?

꾸밀 것들 사러 나가자!!! 하나 둘 셋 찰칵!

돌로 인사?
피딩?

루피와 작별인사는? ㅠ ㅠ

여행계획서!!

부엌공사 마무리

가스스토브!!!! 사야 된다!

부엌 페인트 마무리... 꾸아 알렉스 뵈러 가자~!

가스 사용이 없는데 가스를 지금 설치 하는게 맞는 걸까?

용접은 캡틴 직접 뵈고 이야기 나누고 가기 전에 완성 되는걸 보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소통해야 하는 사람이 많은 우리는... 일에 치이게 된다!

우리가 지역프로젝트로 ‘사진관’을 선택한 이유!?



가족중심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인데,

“집에 가족사진이 없구나...”

락아네 사진관으로 우리가 가족사진을 선물 하자!



가족



친구



동료

루피 홈스테이를 하며,
가족과의 추억 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만큼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그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01 락아네 사진관 / 사전준비 ‘일정조율 및 자재 가격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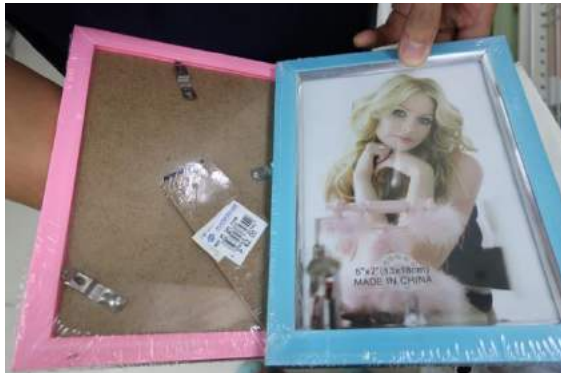
11월 월별보고서 제작 - 페퍼 수
프로젝트 포스터 제작 - 준준 지미 보노



픽토그램 하나 더 넣을지 말지도 함께 고민한 그들.
(준준이 집에 와이파이가 터졌고, 보노는 행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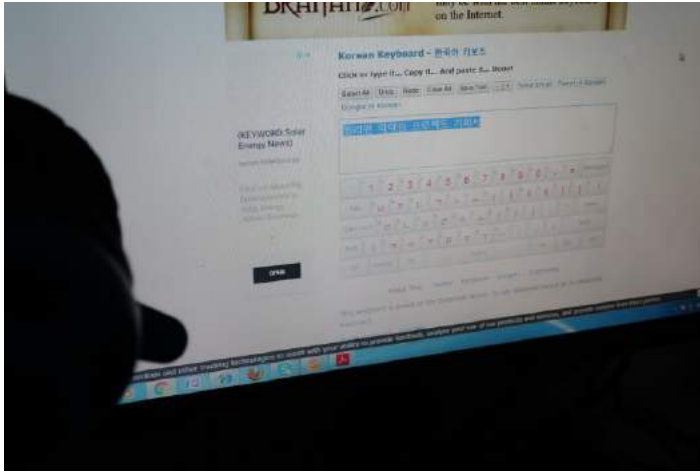
최저가 인쇄소 발견!
프라임 만세 만세 만세!!!!



액자 가격 파악



조명 가격 파악



포스터제작팀이었던 보노, 지미, 준준,
번역 담당 미카! 다들 고생했당 >_<

그렇게 완성된 포스터를 컬러로 프린트하구요~



해 쨍쨍한 날 걸으며 홍보하러 나갑니다!



보노 아래 20개의 손가락...♡



※용의자 긴급 체포※



쉐이드 하우스에도 덕지덕지 히히

락아네 사진관 / 사전준비 '자재 구매'



구매목록
머리띠
풍선
종이
선물 장식
반짝이
눈사람
분필 칠판
YEAH!



마동석. 아니.. 존동석. 해치지 않아요.
귀요미 랍니다. 웃이 좀 끼네요..ㅎㅎ

카메라 렌즈에
지문 묻어서
반짝이
뿌연 상태...ㅎ



지침 단계 3 지침 단계 2 지침 단계 1

음...페퍼는 화가난게 아니구요... 조명이 눈에 번쩍 들어와서
어지러운 상태랍니다 하핫. 울 언니는 입 크기 자랑 중~



온
사
방
에
뽀이
반
짝
이

(우리의 회의실, 바랑가이 홀에 펼쳐둔 우리의 스튜디오 장식품들!)



깨끗하게 맑게 틈이 없게~ ☺



부모님 전상서 + 철없는 막내 아들

별을 먼저 붙인 후 난관 봉착.
어디에.. 달아 볼까?



여백의 미. 스페이스 X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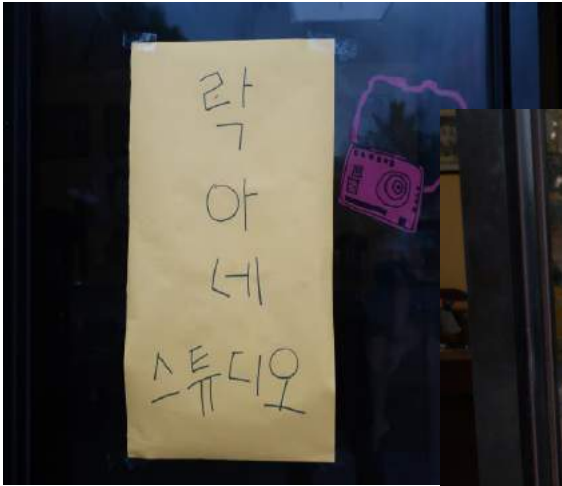
페퍼 특허 포즈. 45도 각도에 살짝 위 쳐다 보기.



R 풍선은 락아의 파괴왕. 회정이가 터뜨렸어요

락아네 사진관 / 사전준비 '판넬 및 공간 꾸미기'

락아네 포토스튜디오로
모두모두 놀러 오세요~~~~



무슨 의미냐고 뜻밖에
관심 많이 받던 녀석.



이제는 똑딱똑딱
만드는 거 껌이지. ㅎㅎ 는 허언증.



힘내라 힘공차



이랏샤이마세!



러브풍선열일칭찬해

락아네 사진관 / 프로젝트 시작 ‘가족&친구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ONE
TWO
THREE



찰칵!

스마일~

ITO ITO
(여기여기)



우리가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행복한 찰나의 순간과 가족, 친구와의 온기를 담고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수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스튜디오에 퍼지는 웃음 소리와 사진 속 미소를 보며 이 프로젝트를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락아네 사진관 / 프로젝트 이후 '사진 분류! 포장!'



액자우리가다샀다



저녁 늦게까지 파티하고 오자마자 프로젝트 준비하는 우리 최고.



열.일.모.드



사진 정리하고 분류하고
이름, 배달 주소 정리하고 액자에 넣고 포장까지!!

락아네 사진관 / 프로젝트 이후 '사진 배달'

친구 사진은 바람가이 홀에서 직접 수령해가세요~



배달참행복했지



가족 사진은 저희가 직접 집으로 배달 갑니다! -락아 산타-

사진만 보여주면 어디 사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질리안 지못미...뽕잇(못생겨떠)



배달 하는 날 비가 와서 더 좋았다던, 준준&보노&페퍼 이들의 열일로 이틀을 예상한 배달 일정은 하루로 단축 되었다!



많은 상점들을 방문해 가스 스토브의 가격을 직접 체크했고 저렴하지만 좋은 가스 스토브를 선택했습니다!



데이케어센터의 큰 냄비를 고려해
큰 냄비도 직접 올려보고 받침대도 만져보며 계속 확인하고 비교해 본 우리.

아민파고만 봐?



항상 다 좋으시다는 맘조님

4월에 재 시작하는 피딩을 고려해
가스를 구비 하는 일정을 조율했어요!
우리는 가지만 Y와 센터의 소통은 쪽~!

예상과 다름이어서 아쉬웠지만, 놀랐던 아라

우리의 생각과 선생님들의 생각을 맞춰 나가는 회의 시간~!



전구보다 포인트를 먼저?!



조는 거 아님

꾸야~ 내일 책 가격 보러 가요~!!



달려와준꾸야



준준이 화난 거 아니에요

스토리북!!!
딱 좋아! 우리가 찾던게 이거지!!!!하지만 아이들의
수준을 우리가
판단하긴 어렵다!
선생님들과 함께
다시 오는 게 어때?

A부터 N까지만 벽에 붙어있던 교구도 새로 살까?

04 교육환경개선(1) / YOUTH와 페인트칠 하면서 친해지자!

웰컴투더페인트월드니



쿨민트너로정했다



꾸야랑성아랑커플디후후

이 곳의 무료 아이스티... 시원하고 정말 맛있다.(TMI)



뚜껑을 열고 우리가 고른 색이랑 달라서 일동 당황한 우리...
알고 보니 휘휘 휘저어 색을 섞어야 하는 것이었다 호호



데이케어센터 물건들 대이동!



헬스케어센터 물건들 탑 쌓기!

04 교육환경개선(1) / YOUTH와 페인트칠 하면서 친해지자!



파나시엔에 온다!



많은 YOUTH들과의 친목은 금적.. 하지만
흔쾌히 도와주러 온 모두에게 감사! ♡



모두 여기 보세요~



센터는 지금 변신 중~!
보노는 상, 하의에 초록 물을 들였습니다.



우리 깔끔 꾸야는 페인트 칠도
깔끔하게 하십니다 ☺



방학 기간을 활용한 1차 페인트칠 완성!
2차는 언제가 될까...

교육환경개선(2) / 전구, 칠판, 선풍기, 책상... 데이케어센터에 정말 필요한 것은...?

땡벌아래 4개의 문구점과 서점을 탐방한 우리. 고생해따아~! 꾸야에게도 감사를



음.. 보헤미안랩소디 영향일까...?



빗자루



OPPA 사랑해요~♡



전구



선풍기



분필



HOW MUCH IS IT?
얼마야 얼마문대

05 우리는 또 다시 회의한다. 바수라...후...



보노는 따봉을 참 좋아하지요.



페퍼는 유연한 코를 가졌답니다.



페퍼: 회의 내용 내가 정리했다 수:내가 했다 ☺

회의내용안알라줌



준준이가 아프고 지쳐했었는데...

긴 회의에 지칠 땐 사진 한 방.

02

락아의 피드백



락아네 사진관 피드백

좋았던 점

준비 과정

- 보여주기 식이 아닌 살면서 느꼈던 소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문제로 삼아 해결하고 실천하고자 노력

▷ 이 프로젝트가 지역프로젝트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우리는 그럴듯한 사회문제를 택해서 있어 보이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지 않았다.

● 프로젝트의 진행과정과 팀워크

▷ 국내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이번 프로젝트를 잘 해나갈 수 있게 만든 원동력!

진행 과정

- 프로젝트 목적이 의도와 잘 부합했다고 느꼈다.

▷ 사진 찍고 배달하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가까워 짐을 느꼈다.

▷ 가족 사진이 없었던 가족들이 찾아오셔서 여러 개의 사진을 골라 가셨다.

▷ 이 날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날이었다. 소중한 옷과 신발을 신고 올 만큼...

▷ 전문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는 부족해도 직접 하는 것을 택했다.

● 우리와 함께해준 현지, Y 사람들이 있었다.

▷ 미카와 Kuya John, 우리를 늘 도와주는 Chu와 Casi, Y의 청년들까지...

Check
point

정량적 평가

- 전체 프로젝트 참여 인원 확인 : '가족' 74가구 & '친구' 198장
- 기부금이 모인 액수 : 2240페소

아쉬운 점

준비 과정

-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 홍보를 했었더라면?

▷ 사진관 프로젝트가 끝나고 몰라서 사진을 찍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금 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축제를 활용한 홍보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 실제 예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 액자의 실물을 보고 액자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많았다.

진행 과정

- 우리가 돈을 받았던 것

▷ 돈을 받은 큰 이유는 모든걸 다해주고 가는 '돈'으로 인식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바람이었고 두 번째는 기부였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돈이 있는 사람만이 참여 할 수 있던 프로젝트의 한계성을 인식했고 모두 아쉬움을 느꼈다.

● 청년들과의 협동

▷ Y 청년들과의 사전 만남이 있었다라면 이 날 함께 더 많은 것을 했을 텐데...

●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한 것

▷ 우리를 따르는 아이들이 프로젝트 공간에서 뛰어 놀아 정신이 없었다.

● 피드백이 없었던 것

▷ 이틀간 진행되었던 프로젝트. 첫 날 프로젝트가 끝나고 서로 피드백을 했더라면 이틀날 조금 더 개선된 상태로 진행하지 않았을까?

각자에게 'Field Exposure'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준준 : 내가 낸 질문이지만... 도저히 모르겠다. 영어로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뭘 말인지... 허허
다만, 나에게는 이 의미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경험해보라는 말로 다가온다.
좁은 의미에서 의 홈스테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생활을 해보라는 의미가 아닐까?
규간님은 왜 우리에게 이 질문을 주고 한국으로 가셨을까? 궁금하다!

페퍼 : 간사님께서 중간격려 때 숨 내려놓고 가신 '필드 익스포저'라는 단어는 참 생소했기에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무던히 머리를 굴렸다. 아직 그 뜻을 정확히 헤아릴 순 없지만 저는 '필드 익스포저'란, 내가, 루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이들과 함께 행복한 순간들을 쌓아가는 친구이기도 하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곳의 지역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탐색하고 발견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수 : 규간이 중간격려 당시 홈스테이를 이제는 필드익스포저로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그 이후로도 여전히 나에겐 홈스테이 이다... ㅎㅎ 이 말은.. 깊이 의미를 고민해 본 적
이 없다는 뜻...? 띠용? 데 ! 어떤 단어를 쓰고 사용할지 고민하기 보다 그냥 내가 느
끼는 그들과 일상에 녹아 들고 싶다.

각자에게 'Field Exposure'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보노 : field exposure 이거잖아? 내가 이해한 의미는 음.... 연애 말고 결혼 같은 느낌 이었던 것 같아. 설명을 좀 더 하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그냥 잠깐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집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집에서 같이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씩 그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는 시간들인 것 같아.

특히 홈스테이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사실 처음에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손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너무 고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특히 우리 가족들이 하는 소소하지만 일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함께 하면서! 같이 설거지를 하면서, 화장실 물을 같이 나르면서, 새끼 돼지 낳을 때 옆에서 손전등을 들면서 같이 탯줄 자르는 거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 ㅎㅎㅎ

지미 : 우리가 루피에 푹 빠지는 것. 그리고 루피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떻게 정리하기 어려운 것 같다.

10월 17일부터 지금까지 루피에서 살면서, 발견한? 혹은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준준 : 지난 2개월 반 동안 살았던 루피에서 얻은 것은 ‘따뜻함’과 ‘정’이다.

루피에서 살면서 사람의 ‘정’을 발견하고 그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이 그리울 것 같다. 아! 그리고 이 외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얻고 간다.

페퍼 : 세상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문장이 아닌 피부로 느낀 것, 나도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스마트폰, TV, 책, 다른 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물 밖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전부였다. 요즘 사회에서는, 어쩌면 적어도 그때의 나로서는 어렵겠다고 판단하며 상상만 했던 일들이 루피에 오면서 현실이 되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미소와 진심이 통하는 가족이 되고, 아이들을 보며 눈에 자동녹화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물어도 누가 어디 사는지 아는 이 끈끈한 마을이 있고, 나 또한 그 속의 일원이 되어 준별 줌바대회를 위한 연습도 열심히 하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길목에서 하염없이 기다려도 보고, 야외에서 하는 별빛 샤워 ... 어느새 이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과 그만큼 내 삶에 녹아들었다는 것이 그저 꿈같은 뿐이다.

'페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ㅋㅋ

지미 : 나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넓어진 우물에서 해볼 수 있게 된 것.

10월 17일부터 지금까지 루피에서 살면서, 발견한? 혹은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수 :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가족과 언어는 다르지만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를 얻었다. 아마도 고될 한국에서 그리워 할 수 있는 제 2의 고향도 얻었다. 또 나는 루피 가족을 만나고 이곳에서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미래에 내가 꿈꾸는 나의 삶에 모습에 더 힘을 실어 살아야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결혼을 해서 나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나의 돈과 시간을 쓰기보다 나의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쏟고 싶다는..?? 지금 알게 생각나는 것은 이 정도이지만 지금의 이 경험과 시간이 훗날 나에게 줄 자양분이 어마 어마 하다는 것을 난 알고 있다.

보노 : 사실 얻고, 발견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뭘 써야 하나 고민이 되었는데 그냥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소중한 마음을 감사하게 받았다는 거!! 음식에 예민해서 루피 적응에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홈스테이 초반에 필리핀 엄마가 내 입맛에 안 맞을 까봐 매 끼니 마다 오늘 메뉴 알려주시면서 싫으면 다른 거 해주겠다고 하셨거든. 처음에는 그게 엄청 부담이었는데 함께 하는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그게 부담이기 보다는 정말 나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민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소중하니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나를 사랑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받을 수 있던 그 시간 자체가 감사해.

루피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특별히 영향을 준 사람이 있나요?

준준 : 우리 팀원 그리고 홈스테이 가족들이다.
이유는 비밀이다! 허허 :)

페퍼 : 에스유이. 그녀의 이름은 문송가. 루피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향이겠지만 좀 더 '특별히' 내 24시간 루피지기 성아가 떠오른다.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붙어 있었던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조용히, 열심히 맞춰 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 성아로부터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배웠고, 적극적인 제사이랑 손 표현이 참 멋진 일이라는 것, 내가 살던 세계를 벗어나도 나는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축제날의 기억도.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의 생활에 잔잔하지만 강하게 머릿속에 스며있을 것 같다.

지미 : 함께 지내는 꾸야(형) 블랙, 나나이.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일상을 행복하게 사는 분들과 함께 지내며 조금씩 물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여전히 인복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보노 :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진부한 대답이긴 하지만 얼마나 시간을 같이 보냈느냐의 차이지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랑 작게는 순간순간, 많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 까지도 영향을 준 거 같아. 거기에서 '특별히'를 생각해 보면.. ㅎㅎ 우리가족?!

수 : 스쳐가는 얼굴들이 참 많지만 특정한 사람이 떠오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루피(필리핀)에서 다양한 '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문화와 태도가 참 인상 깊었다. 미스 게이 콘테스트라니!! 실화냐!! 아무도 게이라고, 트랜스젠더라고 쳐다보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옆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대하니 머리로 인정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나도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나도 참 보수적인 사람이었구나 싶다... (에? 루피에서 발견한 것 또 찾았다!)

필리핀 나가, 루피 이곳으로 언제 다시 올 꺼야? 우리 다 함께 같이 올 수 있을까?

준준 : 빠른 시일 내에 와야지라! 이번 여름에 다 같이 올 수 있으면 좋을 듯... ㅋㅋ
혼자 오긴 썩스러워요... 여기 오기로 마음먹으면 다 데리고 올꺼임! 기다리고 계시라우~~

보노 : 응. 나는 올거야. 가족들이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올거야. 나혼자 오는 거는 싫어. 당연히 식구들 (식구들은 당근 지미 페퍼 수 준준) 다같이 올수 있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조를거니까 ㅋㅋㅋㅋㅋㅋ 다들 같이 오기다? ㅋㅋㅋㅋㅋㅋ

지미 : 때가 되면 개개인으로, 몇몇이 함께, 또는 다 함께 올 수 있지 않을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오는 것은 분명하다.

페퍼 : 5월에 다시 오고 싶다. 성아와 남정의 생일이 있기 때문이다(이분들 의사는 안 물어봤지렁). 나,보노,준준이는 이곳에서 색다른 생일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었지만 이들은 좀 더 따뜻한 계절에 태어나면서 살짝 어긋났다. 이들의 생일을 필리핀의 또 다른 가족들과, 필리핀의 생일 문화대로 축하해주고 싶다. 필리핀 사람들이 좋은 날에 입는다는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장수의 의미를 담은 스파게티를 찹찹. 그리고 꼭 다 같이 한 번은 왔으면 좋겠다. 혼자 오는 것도 의미 있지만 독수리는 5형제다. 독수리 3형제.. 독수리 4형제.. 어딘가 허전함을 느꼈다면 더 이상의 설명은 끝!

수 : 이 질문을 생각 할 때만 해도 최대한 빨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곳에 있지만 벌써 이곳이 그리운 느낌이라랄까? 지금도 비슷한 마음이지만 이 마음이 조급함과 욕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한국에서 보내고 살아갈 시간 속에서 이 감정이 많이 무뎌질 것 같은데... 마음이 썩 좋지 않다. 썩 좋지 않다고 표현한 것은 내 감정을 형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팀원들과 반드시 다시 이곳에 오고 싶다는 것이다. 꼭 우리 같이 오자. 그게 언제든! 혼자서 외로울 것 같아 ㅎㅎㅎ 그냥 다같이 오고 싶어 해해. 그때도 우리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어떤 작은 존재로 남아있을까?

함께여서 하지 못했던 것.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 있어?

준준 : 음... 일단, 제 전공을 살려서 정치 관련해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고, Dolo에서 활동도 해보고 싶었고, 웅변 대회(?)도 해보고 싶었고, 학교 학생들 하고도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고, 우리 피딩 프로그램 했던 학교들도 다시 방문해보고 싶었고...

하고 싶었던 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오면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깐....????? 그렇죠? 다시 오면 할 건 많아요! 허허!!!

지미 : 프로젝트라기보다는 데이케어센터 아이들과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이가 되고 싶었고, 루피의 아이들과 함께 뛰어 노는 사이가 되고 싶었고, 부모님들, 선생님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고민들과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고 싶었고, 기쁜 날과 슬픈 날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사이가 되고 싶었고, 부엌을 함께 지어보고 싶었고, 사진관 프로젝트는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을 것 같았고, 홈스테이 가족들과는 다음에 또 볼 것이라는 당연함을 서로 느끼는 사이가 되고 싶었다.

신기하게도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함께 하고 있었다.

수 : 함께여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힘들 때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함께라서 하지 못한 것도 모두 있을 것이다(오로지 내 생각!). 음.. 해보고 싶었던 것...? 루피의 어머니들에게 부엌 정도의 일자리를 찾아 연계해 주고 싶기도 했고, 터무니 없지만 자전거와 전기를 연결해 센터 전구의 지속가능성도 해결해보고 싶었고 우리가 만든 부엌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마을 축제를 열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와 달리 지금 난 우리 모두가 이야기 나누고 합의한 것을 조율하고 실천에 옮기는게 더 중요하고 먼저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함께 해온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좋다.

함께여서 하지 못했던 것.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 있어?

보노 : 나는 진짜 같이 음식 해서 먹는 거 하고 싶었어. 마을 잔치라고 해야 하나? 우리가 80일 동안 루피에서 살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한날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우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사람들이랑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같이 먹고 싶었어. 서로 같이 요리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도 나누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넹..

페퍼 : 샤워하면서 열창하기, 선풍기 독점하기, 내 마음대로 식사 메뉴...? 질문의 의도와 살짝 결이 다른 것 같지만 함께 생활함으로써 서로 배려해 나갔던 부분들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프로젝트 기획신생아인 나에겐 4개월의 활동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때론 벅찰 때도 있었지만, 그 과정들이 있었기에 '함께'의 의미가 빛을 발하는 것 아닐까. 변명은 아닌데 되게 변명같은 변명을 하자면 우리 팀은 시간이 좀 더 주어졌다면 각자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들 하나씩 다 함께 해봤을 것 같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내가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들을..! 난 영화 맘마미아나 라라랜드 속 노래를 나눠 부르고, 춤도 추면서 작은 뮤지컬 영상을 찍어보고 싶었고, 쓰레기 문제와 접목시켜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도 해보고 싶었다. 상상만으로도 ㅎㅎ 재밌당

03

락아의 개인 에세이



여정' S Diary

*여정의 이공일팔

"후회 없이 살고 싶은 게 아니고 언제나 후회를 느끼면서 배워나가고 싶다. 그것이 내일을 믿는 것이 아니겠는가."

-간사님이 주신 카드 속 문구

후회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라 여겼건만 아쉬움과 후회는 같은 말이었다. 올해를 믿어보자~

* 글은 참 쉽게도 써진다.

이 곳에서 이 병에 걸리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자만을 비웃 듯 거진 사흘을 내리 냉방병을 앓은 적이 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선 나의 현재 상태 몇 가지를 물으시고 배를 꼭꼭 눌러 아픈 곳을 확인하셨다. 채혈과 채변검사 후에 다시 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진료는 마무리됐다. 약도 처방 받지 않았다. 싱거웠던 진료에 비해 진료비는 생각보다 매웠다. 400페소, 한국 돈 약 8000원. 보노 언니의 사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다래끼가 나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진료와 약값까지 총 약 1500페소(약 30000원)가 나왔다. 이 중에서 약값은 1000페소(약 20000만원)를 차지한다.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가 의약품이 비싸며, 외국인이라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라는 생각에 그쳤다. 그러다 나의 외국인들이 떠올랐다.

여정' S Diary

우리 집 셋째 도바나는 유난히 치아가 약한 친구다. 입을 벌리면 굳이 자세히 보지 않아도 충치가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어느 날 아침부터 이어진 어금니 통증은 잠들 때까지 도바나를 괴롭혀 결국 다음 날 새벽 그녀를 울리고 말았다. 도바나가 계속 이가 아프다고 나나에게 말씀 드려도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를 위한 약 마저도 없어 그저 참아야 하는 게 최선이었다. 밤 너머로 들리는 도바나의 울음소리에 깨 충치가 도바나를 그만 괴롭히길 기도 드리면서 루피에 유난히 치아가 온전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에 물음표를 달지 못했다. 달 수 없었다.

락아네 사진관 홍보 차 존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때였다. 할머니님 세 분을 만나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한 분께서 갑자기 다리를 보여주셨다. 원인 모를 피부병으로 살은 다 까진 상태이며, 군데군데 하얗고 빨간 상처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파리들이 그곳에서 쉬어가기도 했다. 댁에 들어가셔서 연고 하나를 가지고 나오셨다. 몇 년 전, 한국 의료 봉사단이 할머니께 드리고 갔다고 한다. 연고는 반으로 잘라 하나도 남김없이 쓰신 나머지 거의 종이 표면을 만지는 듯 너덜너덜했다. 연고에 남은 거라곤 간절함뿐이었다. 당장 너무 아프고 약은 필요한데 구할 수가 없어 나에게 혹시 이런 약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셨다.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 말에 큰 실망을 하신 채 한국에 가면 이런 약 좀 구해다 줄 수 있냐고 하셨다. 난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 없었고, 그저 노력해보겠다는 책임감 없는 말의 끝을 흐렸다. 아픈 마음으로 할머니의 상처를 보는 것과 말라버린 연고를 만지작거리는 게 비겁하게도 나의 최선이었다.

여정' S Diary

필리핀은 건강보험이 없다고 한다. 종종 보이는 PhilHealth는 보건소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험청이란다. 그럼 필리핀에 건강보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이곳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보험을 위한 곳이었다. 직장을 가져야지만 건강을 좀 더 챙길 수 있다니. 속으로 치사하다 외치는데 스치는 생각. 그럼 전국민 대상 보험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아닐 것 같다'는 씁쓸함으로 자문자답했다. 그 돈조차 낼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뿐이라는 무력감이 들기도 한다. 감히 내가 만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나라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 자체가 욕심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타자만 타닥타닥 두드리는 손이 얇겠다.

왜 난 내가 살던 한국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한국에도 분명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텐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여느 때와 그렇듯, 이 고민들이 생각으로 그친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내 몸이 아프고 나서야 진정으로 그들을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참 부끄러운 일이다.

벌써 12월 에세이다. 시간은 어째 점점 더 빨리 흐르는 것 같다.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필리핀에서의 생활을 그냥 흘려 보내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처음의 자세를 유지하며 잘 마무리하고 싶다.

12월 보고서를 만드는 와중에 보노가 옆에서 이번 12월의 주제는 '파티'로 하는 건 어때?라고 했었다. 오... 이거다 싶었다. 이번 달에 나는 수많은 파티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준준이 생일 파티, 꾸야 존 생일 파티, 루피 가족들과 이웃들의 생일 파티, 옆집 꾸야의 결혼기념식 파티, 우리가 활동하는 데이케어센터의 파티부터 루피의 각 존 별 뷰티 콘테스트, 포기 콘테스트, 줌바(춤) 콘테스트, 옆 마을 피피안의 피에스타, 루피의 피에스타, 그 축제의 분위기 속에 우리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뭔가를 해보려 했던 락아네 사진관 이벤트,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과 가족들과 팀원들과 함께 즐기며 여러 번 했던 크리스마스 파티까지. 적고 보니 한 달 안에 어떻게 이 모든 파티들에 스며들어 있었을까 싶은 정도로 내게 12월은 넘치는 파티의 시간이었고 매일매일이 기념일이었다.

남정' S Diary

우리가 직접 기획해야 했던 락아네 사진관 프로젝트를 제외하고서는 이미 12월의 루피는 파티 일정들로 가득 차있었기에 내가 뭔가를 더 해내려고 아등바등 하기보다는 이곳의 기쁜 일정들과 흥 넘치는 사람들의 분위기 속 순간순간들에 함께 녹아들려고 했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루피의 행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많았기에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진짜 루피를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더 깊게 보고 느낄 수 있었던 루피의 모습은 내가 이 마을에 더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루피에서의 파티들은 참 따뜻했기 때문인 것 같다.

한 가지 예를 나누자면 줌바 콘테스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 존을 응원하고 있을 때다. 루피라는 마을에는 7개의 존이 있는데 줌바 콘테스트는 이 7 존 주민들이 각 존의 춤을 연습하여 축제날에 마을 사람들 앞에서 추고, 가장 잘 춘 존은 상도 받는다.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내가 한국에서 느꼈던 대회는 우승하기 위해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이 멤버로 선발되어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이었는데, 이 곳에서는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여 춤 실력과는 크게 상관없이 함께 즐겼다는 것이다. 박자가 조금 어긋나도, 동작이 조금 달라도 할머니부터 삼촌, 고등학생, 꼬마 아이까지 함께 무대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연습한 것을 보이는 것이 어찌면 루피의 사람들에게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게 그 순간은, 그 장면은 꽤 크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었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러한 따뜻한 감동들이 비록 눈이 내리지는 않지만 12월 동안 계속해서 마음속에 소복하게 쌓여갔던 것 같다.

성아' S Diary

눈을 찔러 난감하던 앞머리는 이제 귀에 걸 수 있을 만큼 길어졌고, 하얗진 앓았지만 그럭저럭 노랗던 나의 피부는 이제 완전한 브라운 색에 가까워 졌다. 느리게 갔으면 하는 시간은 야속하게도 참 빠르게 흘러간다.

음.. 요 며칠 핸드폰 안 가져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었다. 와이파이가 터져 문득 연 인스타그램 속에서, 그리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마주하니 순간 무너질 뻔 했기에.. 그렇게 잠시 한국을 만나고 다시 나를 다잡으며 나는 나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몇 걸음 걸어 나와 트라이시클을 타고 LCC터미널에 내린다. 그 후 짚니를 타고 루피로 향한다. 처음엔 막연하게 멀고 피곤하게 느껴지던 그곳으로 가는 길을 꽤 오래전부터 눈으로 담기 시작했다. 기사님이 짚니 터미널에서 나오며 25 페소를 내고 오른쪽으로 돈다. 기차길에서 속도를 완전 줄이지만 엉덩이 두 번 쿵디쿵디 찢는건 피할 수 없고 그렇게 쪽 직진하면 뮤니시펄이 나온다. 어느 정도 들어가 이쯤이다 싶을 때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고 큰 커브길 두 번을 돌면 루피 zone 1이 보이기 시작한다. 9월에 왔던 이 길은 지침이었고 10월에 이 길은 적응 이었으며 11월 이후 이 길은 설렘과 두근거림, 그리움이었다.

성아' S Diary

루피 축제에 나는 영화 한 편 찍었다. 호러나 액션영화를 떠올리기 쉽지만 로맨스 영화였고, 행인 1,2도 아닌 무려 여주였다. EDM에서 발라드로 바뀌는 노래, 춤추자고 손을 내밀며 다가오는 미소 소년 제이슨, 별과 달 아래에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발걸음 맞춰 댄스 춤. buwan이라는 노래를 이 곳에서 우연히 들을 때 마다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가는 12월 11일.... 이런 소소한 추억을 뒤로한 채 지금 난 루피에서의 큰 이별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일어나라고 라디오 크게 트는 우리 루피 엄마, 아침에 깨자마자 페퍼와 내가 있는 이불로 들어와 우리를 안아주는 제이드와 도바나, 늦게 들어오면 문 잠그고 혼내는 라이자, 아직도 우리에게 너무 수줍은 첫 째 힘엘이. 농구 코트를 지나면 항상 ate sue를 불러주는 사람들, 먹고 싶은 과자 손짓발짓으로 소통했던 싸리싸리 ate들, 항상 반갑게 인사해주는 까가왓과 타눗분들, 집 들어가는 길에 꼬리 흔들며 반겨주는 브라우니, 우릴 보면 달려와 안아주는 데이케어 센터 아가들, 언제고 다시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자라는 맘조, 매일 밤 만나 이야기 나누는 제이슨, 나를 잘 따라주던 엔젤과 질리안, 매일 다리에 상처 남기는 우리 도라클로이, 장난꾸러기 아리엘, 이제 나를 보면 휘파람 불며 아는 척 해주는 쌍둥이 제프와 제이, 나가로 놀러가던 날 짚니 탈돈 있냐고 걱정해준 조이, 어두운 밤 데려다 주겠다는 보노 동생 덴, 하트를 날리자 낚아채 옆에 있던 덴에게 준 MG, 저녁밥 먹고 가라고 안 보내 주신 지미의 어머니 나나이 오닝, 지미의 형 꾸야 블랙, 준준이 아버지 꾸야 로날드, 준준이 어머니 아페 수산, 울보-장난꾸러기 지미의 조카 트레이샤미와 듀리스. 보조개가 나와 닮은 레이니얼, 처음으로 드라이브 시켜준 러니보이, 가장 처음 통성명하고 해바라기씨 줬던 로버트, 잇몸이 예쁜 남자 복노이...

성아' S Diary

이곳에서 내가 기억하고 만난 모든 사람들을 평생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다. 이렇게 소중한 추억이 많은 루피를 어떻게 두고 떠나야 할까... 잠시 왔다 가는 방랑자 치고는 미련과 집착이 참 크다.. 사람에게 둘러싸여 힘들기도 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속에서 순간순간 잘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온아띠란 무엇인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수많은 질문들을 그냥 접어두었던 이유. 그곳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일이 아닌 일상의 즐거움으로 다가온, 행복의 이유.

주은' S Diary

12월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 어색한가 싶었더니만, 12월의 내 기본 셋팅은 히트택에 2-3겹 끼입고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 장갑까지 끼야 외출 준비가 끝난다. 그래서 반팔 반바지로 여기에서 보내는 연말은 약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우리의 12월은 프로젝트 준비로 정말 바빴다. 사실 빨리 1월이 오기를 바랄 정도로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 12월 루피는 파티시즌이다. 곳곳에 흥겨운 음악소리가 들리고 번쩍번쩍한 조명이 켜지고 우리의 명절처럼 자주 보지 못했던 친척들이 방문했다. 그렇게 프로젝트와 파티를 즐기는(?!) 사이, 나는 점점 끝이 다가오는 루피 생활의 작별을 생각하게 되었다. 12월에 나는 우리 집에 살면서 음식, 집안일처럼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대한 의미를 좀 깊게 느꼈다. 10월 17일부터 살게 된 집은 엄마, 아버지, 큰 딸 Den, 작은 아들 MG가 살고 있고, 집 외부에서 물을 길러오며, 큰 엄마돼지 anak과 최근에 태어난 새끼 돼지들이 있는 집이다. Den 특제 간장 소스를 만들기 위해 집 뒤에 있는 깔라만시를 언제든 딸 수 있고 할머니가 구해준 고추를 넣은 소스에 엄마표(사실 아버지표가 더 맛있다) 팔롱(가지에 계란물을 입혀서 기름에 구운 음식)을 콕 찍어먹으면 그날 밥은 4공기를 클리어 할 수 있다.

주은'S Diary

좀 똥판지같은 소리지만 나는 음식에 예민하다. 아마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더 많을 것이다. 그 말은 내 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내 스타일이 확고하다는 말이고, 그 말은 또 내 스타일이 아닌 음식은 잘 먹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음식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우리집에서 근 80일을 살다보니 느낀 거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아버지 뿐만 아니라 엄마도 함께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녀는 늘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셨고, 굳이 그 말을 듣지 않아도 엄마를 본 사람이라면 피곤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삶에 여러 일들 속에서 바쁜 와중에도 엄마는 늘 나의 식사를 챙기셨다. 육고기 냄새에 예민한 나는 소, 돼지의 피로 만든 디누고안을 못 먹는다. 그리고 생선, 당연히 못먹는다. 근데 우리 집 주식이 생선이다. 그 때마다 엄마는 내 똥의 계란 후라이를 2~3개 해주신다. 우리 집은 가스레인지가 없다. 화덕으로 계란프라이 하나를 하려고 해도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의 끼니를 챙겼다. 스스로 나의 예민함에 간혀 있을 때는 알지 못했다. 엄마가 챙겨주시는 것들이 그저 손님 대접인줄 알았는데 자신의 삶에 소중한 것을 나눠주셨던 거다. 내가 뭐라고. 나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 까지.

주은' S Diary

이제 공식적으로 2019.1.1.을 기점으로 필리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은 끝이 난다. 소소하게 나누었던 순수한 웃음들. 얇은 나무 판자 사이로 들려져 오는, 졸리지만 행복한 웃음들. kain?(밥 먹었어?) 라고 물어봐주시는 그 질문들, 언니라고 불러주는 그 모든 목소리들, 내 뒤통수를 치고 도망가지만 따라오길 바라는 눈빛과 졸린 눈으로 잠투정을 하며 베개를 껴안고 sweet dream을 말하는 그 목소리와 그 모습. 허허. 아마 그 시간들은 내가 다시 이곳을 오게 하는 힘이 될 것 같다.

뭔가 바뀌길 기대한 내 마음과, 사실 아직 바뀔 준비가 되지 않은 나에게 라온아띠라는 '또 다른 세계'는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 사실 이 시간들을 살아 내고 있는 나에게 라온아띠는 그저 내 삶의 일부의 시간들이다. 앞으로 이어질 삶에서 이 시간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사실 좀 기대가 된다.

회정' S Diary

12월의 첫출발은 아주 좋았다. 11월 마지막 날 오후, 형석 간사님과의 담소담소를 시작으로, 12월 첫째 날 새벽까지 이어진 규홍 간사님과의 담소담소를 통해서 지난 3개월간의 고민이 헛되지 않았으며 충분히 고민을 해볼 만한 주제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다. 또한, 질문 거리를 간사님들과의 담소담소를 바탕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새롭게 질문을 생성하기도 했다. 이후 나는 이번 달 중후반간까지는 이 고민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나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다.

그리고 회복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할 것이고.

간사님들이 떠나시기 전에, 내 생일파티를 열어주셨는데 너무 감사했다. 갑자기 저녁을 먹기 전에 방안에서 케이크가 나오고 생일 축하 노래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내 생일을 축하하는 주는 것인지 몰랐었기에 즐기지를 못했다. 그 순간에 머릿속으로 '이게 내 생일을 축하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간사님들 생일이라서 축하해주는 것인지... 여기서 괜히 즐겼다가 아니면 창피한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분위기가 아무래도 내 생일을 축하해주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는 즐겼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에서 맞는 생일은 신기했고, 좋았다. 그리고 루피에서 생일파티 또한, 따뜻하고 행복했다.

이후 우린 먹고 마시고 즐겼다. 다른 팀원들도 그랬을 것 같아서 '우리'라는 표현을 빌린다. 'Lupi'와 Lupi 옆 마을 'Pipian'에서의 축제 기간에 나는 정말 신나게 즐겼다. 구경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행복했다.

화정' S Diary

특히, Pipian에서의 'Miss Gay Contest'는 신선한 충격을 나에게 줬다. 자신의 성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 즐겁게, 진지하게 그리고 울분을 토해내는 그들을 보면서, 축제라고 해서 마냥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 이외로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우리의 활동지 'Lupi'에서의 축제는 엄청 즐거웠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한 시간이었다. 새벽까지 춤추고 놀던 여정 누나와 성아 누나와 나를 계속해서 마을 주민분들이 체크를 해주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었다. 또한, 크리스마스 파티도 즐겁게 보냈다. 새벽이 넘도록 가족들과 먹고, 마시고, 즐겼다.

이렇다고 해서 놀기만 한 건 아니다. 우리의 남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회의도 하고, 가격 점검도 하고, 사오기도 하는 등 놀면서 해야 할 일들은 다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락아네 사진관'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이후 우리가 9월부터 생각해 온 데이케어센터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었다. 먼저, 사진관 프로젝트는 준비 과정은 많이 힘들었지만, 진행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아주 재미있었다. 마을 분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도 좋았고,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들을 최대한 예쁘고 멋지게 찍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손을 덜덜 떨면서 찍는 그 순간도 좋았고, 배달을 하면서 직접 그들의 삶의 장소에 방문을 함으로써 서로의 유대감을 더 쌓을 수 있어서 좋았고, 비 맞으면서 동네 친구들과 그리고 누나들과 노는 것도 좋았다.

화정' S Diary

다만, 아쉬웠던 점은 '왜 돈을 걸었을까.'라는 후회감이다. 이젠 지금 이 에세이를 쓰는 순간에도 많이 후회가 된다. 허허... 그래도 괜찮은 프로젝트였다. 다음으로, 우리 데이케어센터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해서 몇 가지를 진행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쓰레기 프로젝트를 교육 환경 변화 프로젝트와 동시에 진행을 했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가더라도 Lupi에 사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었으면 했기에 우리 첫 시작으로 데이케어센터 페인트칠을 하면서 그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했었고, 많은 청년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페인트칠을 같이 하기는 했었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계획해놓은 일정에 맞추어서 마무리 하지 못하고 데이케어센터 교육 환경 프로젝트와 마지막 프로젝트는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 되었다.

그 이유는, 12월 크리스마스 이후 내 몸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고, 수술을 받게 되면서... 우리 팀의 활동은 중단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 그리고 형과 누나들을 두고 먼저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미안하다. 특히, '남정이 형'에게는 아주 많이 미안하다. 그래서 회복기에 있는 1월 초는 괴롭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최종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 12월 달이다. 특히, 우리 누나들과 형에게...! Adios~~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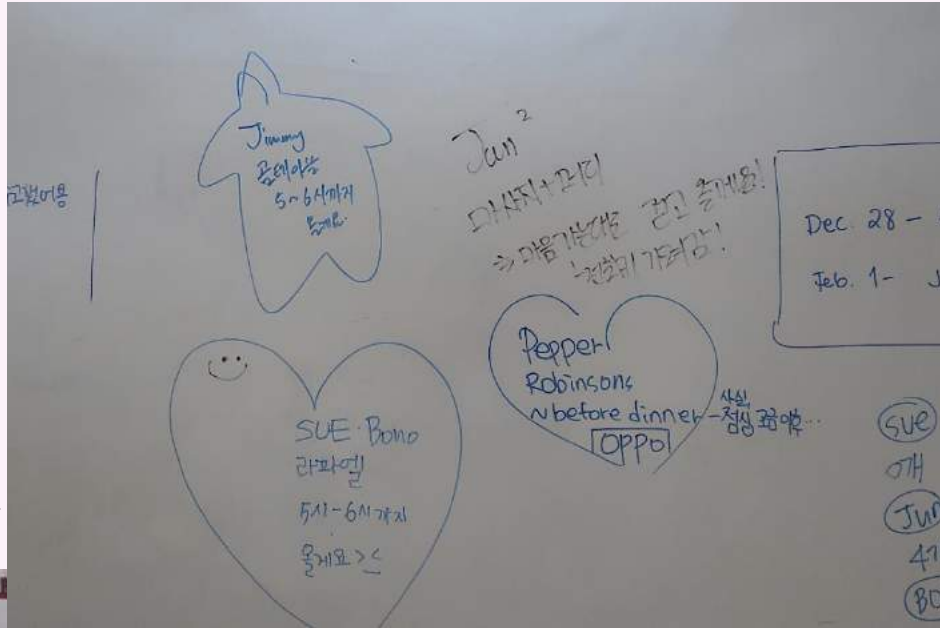
락아네 사진전



성아'S PICK

스마트폰 없는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

오빠가 그린 건 대체 뭘까



영여연이와 이파이쓰느날

3500원 짝퐁 크록스 만세



미카랑 새 신발 샀다 :)
근데, 페퍼야
너 언제 왔니
카메라 앨범 보다가
깜짝 놀랐자나...



제이슨이랑 찰칵 ♥

영화 같은 축제를 보내게 해준 그에게 고마움을..

사랑해여우리자매그날



나에게 필리핀은 꾸아가 있는 곳

당신도 추우면서, 나에게 점퍼를 양보하는 꾸아... 항상 감사해요.

주은'S PICK



우리미카... 아침에 많이 바빴구나...

너무너무 이쁜 내 여동생 Den과 2018년 크리스마스를 추억하며..



그냥 웃겨서 넣은 사진



네. 접니다 다래끼난보구예여...

남정' S PICK



춤추러 가신다며
지미 너도 같이 와서 춤추자고
먼저 나가시고는 내가 나중에
가면 항상 밖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우리 나나이.
어쩔 그리 저와 비슷하신가요.☺

필리핀을 내게 특별한 나라로
만들어 준 사람들



‘R’ 터뜨린 준준이 :

우리... ‘R’은 그냥 이렇게
들고 찍는 건 어때요...?



사진관 홍보를 하러 다니다가 멋진 풍경을 보고

여정' S PICK



빤싯(면 요리)의 고수, 준준이네 꾸야 로널드. 레시피를 심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어주시는 중이다. 종이에 요리의 재료들만 나열되어 있어 감히 “얼마나 넣어야..?” 여쭙니 물과 면의 양에 따라 다르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더욱더 조심스레 “물과 면의 양은 얼마나..?” 여쭙니 사람의 수에 따라 다르다는 솔로몬의 면모를 보이었다.



왼쪽부터 보노네 옆집 딸, 수네 루피메이트, 보노네 아들, 보노네 옆집 아들, 보노네 딸



속으로 나갈까 말까를 수백 번은 고민하고 있던 찰나, 몸 안의 후회방지세포들이 나를 300의 전사마냥 빛속으로 돌진하게 했다.



데이케어센터 페인트칠을 하는 날만큼은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괜히 센터 안으로 발을 넣었다 뺐다 하며 표정을 살피더니, 어디서 났는지 은근슬쩍 들어와 빗자루로 센터 안을 쓸기 시작한다. 스스로 할 일을 찾은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그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 그들이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하다. 우리의 걱정이 이들에게 서운함으로 닿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회정' S PICK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한 장면(?)
한국 돌아가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되어있을 듯..! 사진 찍어준 남정이 형 땡큐용!



그리운 Lupi~~ 잘 있어요! :)



Day Care Center Christmas Party!
그리고 내가 그토록 찍고 싶었던 단체 사진!



2번째로 영화 본 날! 생일에 뭐하고 싶냐고 물어 보길래...
다같이 영화 보는게 소원이었던 '나' 허허!!
한국에서도 같이 영화 봐요!



